

전일동향

전일대비 4.80원 하락한 1,388.2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4.80원 하락한 1,388.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90원 하락한 1,392.1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1,390원대 초반을 횡보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엔화 강세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에 낙폭을 확대하며, 1,388.2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8.1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2.10	1393.00	1381.20	1388.20	1391.10
엔화	936.09	942.95	935.84	941.75	-	
유로화	1618.24	1623.65	1613.32	1622.9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3	-6.17	-14.49
결제환율(수입)		-0.58	-5.23	-12.61	-25.4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엔화 강세에...1,3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8.20) 대비 6.05원 하락한 1,379.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엔화 반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야당의 재정 확대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하며, 일본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약화됐다. 이에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달러당 150엔까지 레벨을 높였던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로 진입하며, 강세를 시현했다. 달러인덱스는 엔화 강세에 약세 전환해 97.856로 마감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2분기 기업 실적 호조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위험자산 투심 개선에 일조했다. 이에 국내증시 외인 자금 매수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환율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말을 앞둔 네고 물량이 조기에 소화될 수 있다는 점도 환율의 레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결제 등 달러 실수요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6.40 ~ 1386.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935.2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05원 ↓
	■ 美 다우지수 : 44323.07, -19.12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01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